

아파트 단지서...카페에서...차량에 '안타까운 죽음'

올해의 광주·전남 이슈

<4> 교통사고로 얼룩진 광주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생이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지고, 음주 뺑소니와 건물 돌진 차량에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등 올해 광주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잇따랐다.

운전자의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 교통사고 인명피해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방과후 하교하던 초등생 A(7)양이 후진하던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40대 운전자는 홀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아파트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사설업체로, 3인 1조 원칙, 후방영상장치 의무 설치 등 환경부 안전 가이드 라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A양의 유가족은 국회전자정원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지만 청원 정족수 5만을 달성하지 못했다.

유가족은 운전자의 회사 대표, 아파트 관리사무

아파트서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사적 제재' 피해 도주...화물차와 충돌 사망 음주운전자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에 오토바이 타고 있던 20대 사망

소장,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체 대표, 입주자대표회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직장 동료들과 카페를 찾은 40대 남성이 건물로 돌진한 차량에 의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지난 4월 18일 낮 12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카페 건물에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상가 내 시민 5명이 차량에 깔리는 중상을 입었고 40대 은행원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밖에 지난 10월 22일 목포 죽곡동에서도 80대 남성이 몰던 경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지난 9월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옛등육교 인근 도로에서 고급의제자인 마세라티 차량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허반신에 중상을 입었고 동승한 20대 여성이 숨지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연인사이로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새벽에 퇴근하다 잠깐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운

을 더했다. 마세라티 운전자 B(32)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지인들과 공모해 도주했다. 인천공항공과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범행 2일 만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최근 광주지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B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은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음주운전의 의심 차량을 뒤쫓던 유튜브로부터 달아나다 화물차를 들이받고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다.

음주운전을 추적해 방송하는 유튜브가 지난 9월 22일 새벽 3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의 한 도로변에서 C(35)씨를 음주운전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했다. 추격하는 장면은 유튜브 계정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C씨는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졌다. 광주경찰청은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11월 유튜브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유튜브와 방송 구독자들은 지난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를 쫓아 위험하고 주변 차량 통행을 방해해 공동위협행위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 유튜브의 행위는 개인이 불법 행위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지난 10월 30일 시민들이 애도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를 단속하고 추적하는 사적 제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통사고는 2020년

7718건, 2021년 7543건, 2022년 7122건, 2023년 6972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63명, 49명, 58명, 48명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장대인 기자 kdi@kwangju.co.kr

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

수능 출제위원 참여 후 3년간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법적 근거 법률로 상향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여기서 전자책은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으로, AI교과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즉 AI교과서의 사용 여부를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자료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신설하면서 사실상 AI교과서를 지칭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했다.

이 법안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AI교과서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려는 교육부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됐다.

서울을 비롯해 일부 시도교육감은 AI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한 바 있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통과 후 배포한 자료에서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할 뜻을 밝

혔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해 나가되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능 출제위원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가 마련됐다. 수능 출제위원은 참여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시시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 이사회의제, 학내 구성원 대표기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도 통과됐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폭력 조사·상담 권한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오늘부터 '습설' 최대 10cm

광주·전남지역에 27일부터 29일까지 최대 10cm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27일부터 29일 새벽까지 광주와 전남 북서부를 중심으로 3~10cm 눈이 내리겠다"고 26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27일 오전 광주와 담양·장성 등 전남 북서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밤부터 28일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 북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

리는 곳이 있겠고,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 높겠다. 상층 기압골의 영향까지 겹쳐 눈발이 강해진다

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4~2도·낮 최고기온은 4~7도에 분포하고,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5~1도·낮 최고기온은 3~6도를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눈은 서해안을 지나며 바다의 수증기를 머금어 습하고 무거운 '습설'이다"며 "축사나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400원...어린이 무료

광주 거주 어린이는 새해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무료로, 초·중·고교생은 400원만 내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초·중·고등학생 대상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지원 사업(광주G-패스)에 참여해 학생 교통비 할인 예산의 25%를 내년부터 부담한다.

시교육청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분담률을 매년 차차

늘려 2030년까지 최대 40%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 교통비 지원정책에 따라 시내 거주 만 6~12세 어린이는 이용요금 400원 전액, 만 13~18세 청소년은 이용요금 800원 중 50%인 400원을 즉시 할인받는다.

시교육청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을 돕기 위한 18개 초·중학교의 통학차량 운영비도 올해 2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60억원을 지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첨착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